

日·中間 무역수지 변화와 시사점

2004. 7

무역연구소 동향분석팀

작성자 : 장상식 수석연구원 (☎ 5174)

【목차】

日·中間 무역수지 변화와 시사점

[요약]	i
1. 일·중간 교역추이 및 무역수지 차이.....	1
1.1. 양국간 교역추이	1
1.2. 양국간 무역수지 불일치	2
2 일·중간 무역수지 불일치 조정	3
2.1. 불일치 사유	4
2.2. 조정 방법	6
2.3. 조정 결과	7
3. 일본의 대중 무역흑자 전환 요인 분석...	8
3.1. 요 약	8
3.2. 일·중간 수출입 구조	9
3.3. 일·중간 수출입 패턴 변화	11
3.4. 주요 흑·적자 품목	13
3.5. 일본 및 주요국의 투자 확대	16
4. 결론 및 시사점	22
[부록 1] 일·중간 수출입 통계 조정	26

요 약

□ 일·중간 교역은 2000년 이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어 왔으나
일·중간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양국의 수출입 통계 계상 방법 등
의 차이로 양국간 불일치가 발생

— 일본 통계기준 對中교역은 90년대부터 계속 적자인 반면에 2002년
부터는 중국도 對日교역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하여
양국이 상호 무역적자를 시현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3년의 경우 일본의 對中적자 181억달러인데 반해 중국도 對
日적자가 148억달러에 달한다고 발표

— 양국간 무역수지 불일치는 지난 '95년중 145억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에는 329억달러에 달하는 등 불일치 규모가 크게 확대

'95 '97 '99 '01 '03 '04.1-4

○ 양국 무역수지 불일치(억\$) : 145 174 209 246 329 143

〈일·중간 수출입 및 무역수지 불일치 현황〉

(억달러)

	일본의 對中 교역			중국의 對日 교역			수지차이 (a+b)
	수출	수입	수지(a)	수출	수입	수지(b)	
1995년	219	360	-140	285	290	-5	-145
1996년	221	409	-187	309	292	17	-170
1997년	219	421	-202	318	290	28	-174
1998년	200	370	-170	295	283	12	-158
1999년	233	428	-195	324	338	-14	-209
2000년	304	552	-248	416	415	1	-247
2001년	310	578	-269	451	428	23	-246
2002년	398	617	-219	485	535	-50	-269
2003년	573	754	-181	595	742	-148	-329
04.1-4월	227	293	-66	221	297	-77	-143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일본 및 중국 무역통계

□ 양국간 수출입 통계 불일치는 홍콩경유 재수출, 수입의 원산지 적용 어려움에 따른 수입 과소계상, 운임 보험료 등에 주로 기인

① 홍콩 경유 재수출 : 일본 제품이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수출된 경우 일본은 대 홍콩 수출, 중국은 대 일본 수입으로 계상

② 홍콩경유 수입의 과소계상 : 홍콩의 對日 재수출중 일부가, 일본의 수입통계에서 원산지국이 아닌 대홍콩 수입으로 계상되어 대 중국 수입의 일부가 누락

③ 운임 및 보험료 :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기준으로 작성되어 교역국간 수출입 통계에 차이 발생

④ 기타 : 홍콩의 재수출에 따른 홍콩 중개업체의 마크업(Mark-up), 수출입 국가간의 통계작성 시차 등도 교역통계 차이를 유발

□ 양국의 수출입을 조정한 결과 일본의 對中 무역수지가 2003년부터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對中 무역수지는 1990년대 이후 무역적자가 점차 확대되어 2001년중 적자규모가 최대에 달했으나 2002년부터 급격히 축소

— 일본의 對中 무역수지는 2003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지난해 5억달러, 금년 1~4월중 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연도별 일본의 對中 무역수지 조정〉

(억달러)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당초 (a)	홍콩 경유 (b)	마크업 (c)	조정 후 (d=a+b-c)	당초 (e)	운임· 보험료 (f=e×4%)	수입과 소계상 (g)	마크업 (h)	조정 후 (i=e-f+g-h)	당초 (a-e)	조정 (d-i)
2000	304	134	13	425	552	22	8	9	529	-248	-104
2001	310	125	13	423	578	23	8	10	554	-269	-131
2002	398	134	13	518	617	25	9	9	592	-219	-73
2003	573	170	17	726	754	30	8	10	721	-181	5
'04.1~4	227	63	6	284	293	12	3	4	281	-6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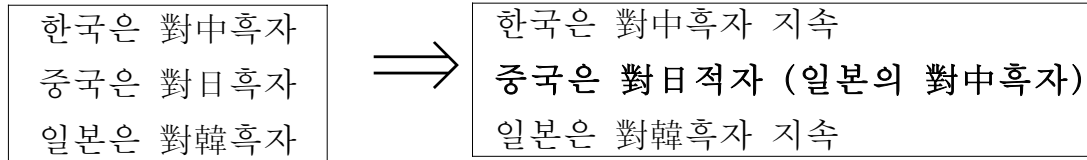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일본무역통계, 중국해관통계, CEIC

□ 시사점 및 결론

- 일본의 對中 무역흑자 전환은 고가품 및 기술집약제품을 중심으로 한 부품·소재의 對中 수출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장기적 흑자기반이 구축된 것으로 판단

구분	특 징	근 거
품 목	對中 수출품목의 구조 변화	- 전자, 자동차, 화학, 정밀기계의 수출비중 상승, 섬유, 철강의 비중은 하락 ⇒ 고가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증가 - 완성품 보다는 부품 등 중간재 수출이 크게 증가 - 음향·영상부품,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등 3개 품목의 對中 수출비중은 '98년 8.9% → '03년 17.7%로 상승
	일부품목의 흑자 확대	- 흑자품목수 확대보다는 일부 상위 흑자품목의 흑자폭 확대 - 반도체, 기계류, 자동차 등의 흑자가 크게 확대 - 상위 5대 흑자품목의 흑자액은 5년만에 4배로 확대 10억달러 이상 흑자품목수가 '98년 1개 → '03년 8개
	對中 무역적자 확대는 제한적임	- 기계·전자, 철강·금속의 수입비중 상승, 여타는 비중 하락 - 적자품목은 소비재, 에너지에 집중되어 급격한 확대에 제약 - 상위 5대 적자품목의 적자액은 5년만에 2배로 확대
	고급기술 집약제품의 흑자 확대	- 고급기술집약제품에서의 흑자가 노동집약, 1차산품, 에너지 등의 적자를 크게 상회 '03년 고급기술집약제품 흑자 : 346억달러 '03년 노동집약, 1차산품, 에너지 적자 : 225억달러
투 자	중국진출 일본계 기업에 대한 수출증가	- 현지생산 확대에 따른 부품수요 확대, 생산시설 신증설에 따른 자본재 수출 증가 - 철강,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기계요소 등 4개 품목 전체 수출에서, 중국진출 일본계 기업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6년 15.5% → '02년 21.6%로 크게 증가
	중국진출 비일본계 외투기업의 대일수입 확대	- 중국에 진출한 일본이외의 외투기업이 일본으로부터 중간재, 부품 등의 수입을 확대 - 중국의 대일 수입 총액의 2/3가 중국내 외투기업에 의한 수입임 ⇒ 일본계 기업외에도 여타국 외투기업에 의한 수입도 적지 않음을 시사
내 수	중국 내수용 수출증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중국의 對日수입 총액의 2/3가 외투기업에 의한 수입인데다 외투기업의 수입비중도 꾸준히 증가 추세 - 중국 내수확대에 의한 對中수출 확대 요인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일본의 對中 흑자 전환으로 그동안 유지되어온 한중일 3국간 상호 흑자 연쇄고리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나타남



- 한·중·일 3국 무역중 점차 일본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없지 않음
 - 현재 한국이 3국간 무역에서 흑자를 실현하고 있으나 향후 對中 교역이 균형으로 발전할 경우 3국간 무역에서 적자 가능성도 없지 않음
- 중국의 對日 수입이 전자, 기계류 부품으로 전환되면서 한국의 對日 수입구조와 중국의 對日 수입구조가 점차 유사
 - 한국과 중국의 對日 수입 상위 20대 품목중 중복품목은 지난 1998년 7개에서 2003년에는 12개로 증가
 - 중복품목 대부분이 부품 또는 중간재 등으로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출증가가 對日 수입을 유발시키고 있음을 나타냄
 - 한국과 중국의 對日 수입구조 유사化는 한국과 중국의 對日 수입 의존이 심화됨과 동시에 한국과 중국의 경합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
- 일본의 對中 수출이 첨단제품에 집중되고 있어 對中 흑자는 향후에 더욱 확대될 소지가 큼
- 따라서 일본의 견제 및 중국의 도전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산업구조 재조정이 필요
 -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첨단제품 및 1등상품 개발이 핵심 과제이며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통한 비교우위 확보가 긴급
 - 장기적으로 중국의 산업발전 단계에 맞춰 상위 보완 산업분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것도 필요함

1. 日·中 間 交 易 추 이 및 무 역 수 지 차 이

1.1. 양국간 교역 추이

□ 일본과 중국간의 교역은 지난해 1,326억달러(일본기준)로 2000년 이후 증가세가 크게 확대

— 일·중간 교역은 지난 1994~1999년중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나 2000~2003년중에는 연평균 19.0%씩 증가

○ 금년 1~4월 중에도 일본의 對中 교역액은 30.1% 증가

〈 일본의 대 중국 교역추이 〉

(억달러, %)			
연도	수출	수입	교역액
1993	172 (—)	205 (—)	377 (—)
1994	187 (8.9)	275 (34.2)	462 (22.6)
1995	219 (17.2)	360 (30.8)	579 (25.3)
1996	221 (0.9)	409 (13.7)	630 (8.8)
1997	219 (-1.2)	421 (2.9)	639 (1.5)
1998	200 (-8.4)	370 (-12.0)	570 (-10.8)
1999	233 (16.6)	428 (15.8)	662 (16.1)
2000	304 (30.2)	552 (28.8)	856 (29.3)
2001	310 (1.9)	578 (4.9)	888 (3.8)
2002	398 (28.3)	617 (6.7)	1,015 (14.2)
2003	573 (44.1)	754 (22.1)	1,326 (30.7)
'04.1-4	227 (35.1)	293 (26.5)	520 (30.1)

주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자료 : 일본무역통계 (엔화를 달러로 환산)

— 중국은 일본의 2위 수출시장이자 1위 수입대상국이며, 중국의 수입에서 일본은 1993년 이후 줄곧 1위를 지키고 있음

〈 일·중 양국 교역의 위상 (2003년 기준) 〉

		1993년	2003년
일본 무역에서 중국의 위치	교역	2 위	2 위
	수출	6 위	2 위
	수입	2 위	1 위
중국 무역에서 일본의 위치	교역	1 위	1 위
	수출	3 위	3 위
	수입	1 위	1 위

자료 : 한국무역협회, DOTS

1.2. 양국간 무역수지 불일치

□ 그러나 일·중간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양국의 수출입 통계 계상 방법 등의 차이로 양국간 불일치가 발생

— 일본 통계기준 對中교역은 90년대부터 계속 적자인 반면에 2002년부터는 중국도 對日교역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하여 양국이 상호 무역적자를 시현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3년의 경우 일본의 對中적자 181억달러인데 반해 중국도 對日적자가 148억달러에 달한다고 발표

— 양국간 무역수지 불일치는 지난 '93년중 145억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지난해에는 329억달러에 달하는 등 불일치 규모가 크게 확대

○ 양국 무역수지 불일치(억\$) :

	'95	'97	'99	'01	'03	'04.1-4
	145	174	209	246	329	143

□ 이에 따라 양국간 무역구조 및 성과 비교 등을 위해서는 양국의 무역수지 조정이 필요

〈일·중간 수출입 및 무역수지 불일치 현황〉

(억달러)

	일본의 對中 교역			중국의 對日 교역			수지차이 (a+b)
	수출	수입	수지(a)	수출	수입	수지(b)	
1995년	219	360	-140	285	290	-5	-145
1996년	221	409	-187	309	292	17	-170
1997년	219	421	-202	318	290	28	-174
1998년	200	370	-170	295	283	12	-158
1999년	233	428	-195	324	338	-14	-209
2000년	304	552	-248	416	415	1	-247
2001년	310	578	-269	451	428	23	-246
2002년	398	617	-219	485	535	-50	-269
2003년	573	754	-181	595	742	-148	-329
04.1-4월	227	293	-66	221	297	-77	-143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일본 및 중국 무역통계

2. 일·중간 무역통계 불일치 조정

2.1. 불일치 사유

(1) 홍콩 경유 재수출

□ 일본, 중국 제품이 홍콩을 경유하여 상대국으로 재수출된 경우 수출입 대상국 분류가 서로 상이

— 원산지가 일본인 제품이 홍콩을 통해 중계무역 형태로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 일본은 홍콩 수출, 중국은 대 일본 수입으로 분류함

☞ 홍콩의 재수출 통계만큼 양국의 수출입액에 차이 발생

— UN 통계위원회 등 국제기구는 수출은 목적지(Destination) 기준, 수입은 원산지(Origin) 기준을 권고하여 각국이 이를 적용

— 홍콩의 일·중간 재수출 물량이 점차 증가하여 양국간 무역수지 불일치가 더욱 확대

○ 2003년중 일본제품이 홍콩을 통해 중국에 재수출된 금액이 170억달러, 중국의 홍콩 경유 일본 수출은 105억달러에 달함

〈홍콩의 반입·반출국별 재수출 현황〉

(억달러, %)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04.1-4월
일본→중국	118 (-2.9)	134 (13.8)	125 (-6.6)	134 (7.1)	170 (26.5)	63 (21.7)
중국→일본	75 (2.8)	93 (23.3)	96 (3.9)	93 (-3.3)	105 (12.7)	37 (12.4)

주 : 1. ()내는 증가율

자료 : CEIC

2. 홍콩 공식환율에 의거 HK\$를 US\$로 환산

(2) 홍콩경유 수입의 과소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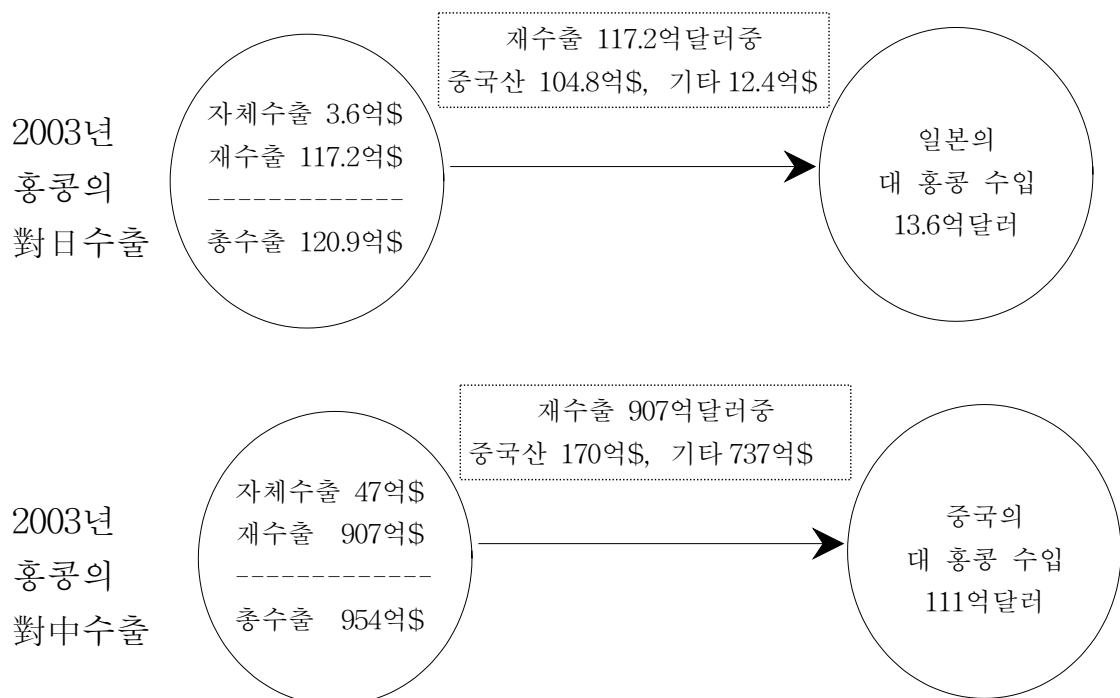
□ 양국에서 홍콩 경유 수입중 일부를 원산지국이 아닌 대 홍콩수입으로 계상하여 상대국에 대한 수입누락이 나타남

— 2003년중 홍콩의 對日 수출중 자체(Domestic)수출은 3.6억달러, 재수출은 117.2억달러에 달했으나 일본의 대 홍콩 수입은 13.6억달러에 달하여 재수출중 일부가 홍콩수입으로 계상

○ 이에 따라 홍콩 재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산 제품도 일부가 홍콩 수입으로 계상되어 일본의 대 중국 수입이 과소 계상

— 또한 2003년중 홍콩의 對中 수출중 자체(Domestic)수출은 47억달러, 재수출은 907억달러에 달했으나 중국의 대 홍콩 수입은 111억달러에 달하여 재수출중 일부가 홍콩수입으로 계상

○ 이에 따라 對中 재수출금액의 19%에 해당하는 일본산 제품도 일부가 홍콩수입으로 계상되어 중국의 대 일본 수입이 과소 계상



(3) 운임·보험료

- 수출은 FOB, 수입은 CIF기준으로 작성되어 교역국간 수출입 통계에 차이가 발생
 - FOB(본선인도가격, 출발항)에 비해 CIF(운임보험료 포함가격, 도착항)가 운임 및 보험료만큼 높게 평가됨
 - 일·중간 거래시 운임·보험료는 수입액의 약 4% 내외로 추산
 - 2001년 12.19~20일 중국에서 개최된 한·중 세관당국간 교역통계 회의에서 CIF중 운임보험료의 비중이 1999년 4.0%, 2000년 3.3%로 추정

(4) 기타요인

- 또한 양국제품이 홍콩을 경유할 경우, 홍콩 중개업체의 수수료 등 부가가치만큼 양국 교역액에 차이가 발생
 - 일본제품이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 중국측 수입가격에는 홍콩 경유에 따른 중개업체의 수수료, 가공료 등이 포함
 - ※ 홍콩 경유에 따른 마크업 (수수료, 가공료 등) 비율 추정
 - 홍콩의 중국제품 대미 재수출의 경우 마크업율은 지난 1988~1996년 중 22~28.7% 수준으로 1996년에는 26%로 추정
 - * R.C Feenstra외 등이 홍콩의 대미 재수출단가와 중국의 대미 재수출용 대홍콩 수출단가의 차이를 이용하여 추정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999.5월 자료)
 - 반면 일·중간 교역은 부품·소재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현지 투자기업에 대한 수출이 적지 않아 홍콩경유에 따른 마크업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 (본 보고서에서는 10%를 가정)
- 그 외에도 싱가포르 등의 재수출, 양국간 수출/수입 통관 시차 등도 교역대상국간 수출입통계의 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임

2.2. 조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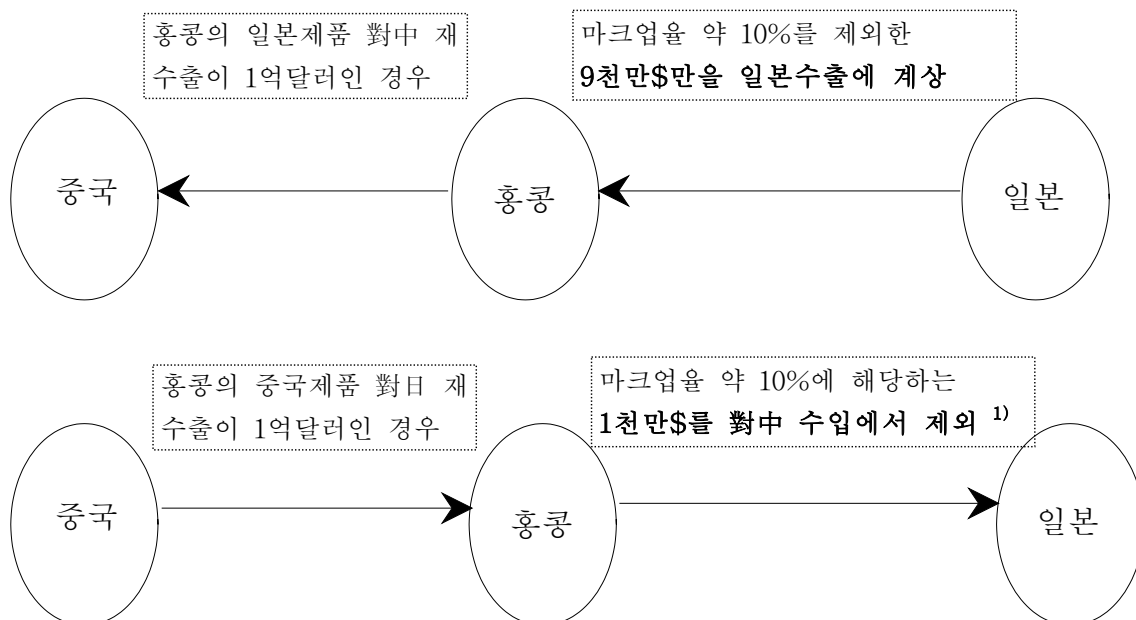
□ 일·중 양국간 수출입 통계중 운임, 보험료 및 홍콩경유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수 수출입 금액을 산출

① 일본과 중국의 수출, 수입을 FOB 기준으로 통일

— 이를 위해 양국의 CIF 수입통계를 FOB 기준으로 환산하기 위해 전체 수입액의 4%를 운임 및 보험료로 간주하여 제외

② 홍콩경유 상대국에 대한 재수출액을 각국 수출에 반영하고, 홍콩 경유 수입시 상대국에 대한 수입 과소계상분을 추정하여 반영

③ 홍콩의 재수출에 따른 마크업 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출, 수입국 모두 마크업을 10%에 해당하는 수출입 금액을 차감



1) 일본 수입통계에 중국제품이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된 경우, 수입액중 홍콩경유에 따른 마크업분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마크업분 만큼을 제외

2.3. 조정결과

□ 일본의 對中 수출입을 상기 기준에 따라 조정한 결과 2003년부터 對中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對中 무역수지는 1990년대 이후 무역적자가 점차 확대되어 2001년중 적자규모가 최대에 달했으나 2002년부터 급격히 축소
- 일본의 對中 무역수지는 2003년중 5억달러, 금년 1~4월중에도 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 2003년 일본의 對中 수출은 당초 수출 573억달러에다 홍콩경유 수출, 마크업 등을 감안하면 총 726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수입은 당초 수입액 754억달러에서 운임보험료, 마크업을 제외하고 수입누락분을 감안할 경우 721억달러로 추정
- 중국기준으로는 조정후 對日 무역적자가 2003년중 18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일본의 對中 무역수지 조정〉

(억달러)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당초 (a)	홍콩 경유 (b)	마크업 (c)	조정후 (d=a+b-c)	당초 (e)	운임· 보험료 (f=e×4%)	수입과 소계상 (g)	마크업 (h)	조정후 (i=e-f+g-h)	당초 (a-e)	조정 (d-i)
1995	219	120	12	328	360	14	9	8	347	-140	-19
1996	221	122	12	331	409	16	9	9	392	-187	-61
1997	219	128	13	333	421	17	7	9	402	-202	-69
1998	200	122	12	310	370	15	7	7	355	-170	-46
1999	233	118	12	340	428	17	9	8	412	-195	-73
2000	304	134	13	425	552	22	8	9	529	-248	-104
2001	310	125	13	423	578	23	8	10	554	-269	-131
2002	398	134	13	518	617	25	9	9	592	-219	-73
2003	573	170	17	726	754	30	8	10	721	-181	5
'04.1~4	227	63	6	284	293	12	3	4	281	-66	3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일본무역통계, 중국해관통계, CEIC

3. 일본의 對中 무역흑자 전환요인 분석

3.1. 요 약

구분	특 징	근 거
품 목	對中 수출품목의 구조 변화	- 전자, 자동차, 화학, 정밀기계의 수출비중 상승, 섬유, 철강의 비중은 하락 ⇒ 고가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증가 - 완성품 보다는 부품 등 중간재 수출이 크게 증가 - 음향·영상부품,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등 3개 품목의 對中 수출비중은 '98년 8.9% → '03년 17.7%로 상승
	일부품목의 흑자 확대	- 흑자품목수 확대보다는 일부 상위 흑자품목의 흑자폭 확대 - 반도체, 기계류, 자동차 등의 흑자가 크게 확대 - 상위 5대 흑자품목의 흑자액은 5년만에 4배로 확대 10억달러 이상 흑자품목수가 '98년 1개 → '03년 8개
	對中 무역적자 확대는 제한적임	- 기계·전자, 철강·금속의 수입비중 상승, 여타는 비중 하락 - 적자품목은 소비재, 에너지에 집중되어 급격한 확대에 제약 - 상위 5대 적자품목의 적자액은 5년만에 2배로 확대
	고급기술 집약제품의 흑자 확대	- 고급기술집약제품에서의 흑자가 노동집약, 1차산품, 에너지 등의 적자를 크게 상회 '03년 고급기술집약제품 흑자 : 346억달러 '03년 노동집약, 1차산품, 에너지 적자 : 225억달러
투 자	중국진출 일본계 기업 에 대한 수출증가	- 현지생산 확대에 따른 부품수요 확대, 생산시설 신증설에 따른 자본재 수출 증가 - 철강,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기계요소 등 4개 품목 전체 수출에서, 중국진출 일본계 기업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6년 15.5% → '02년 21.6%로 크게 증가
	중국진출 비일본계 외투 기업의 대일수입 확대	- 중국에 진출한 일본이외의 외투기업이 일본으로부터 중간재, 부품 등의 수입을 확대 - 중국의 대일 수입 총액의 2/3가 중국내 외투기업에 의한 수입임 ⇒ 일본계 기업외에도 여타국 외투기업에 의한 수입도 적지 않음을 시사
내 수	중국 내수용 수출증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중국의 對日수입 총액의 2/3가 외투기업에 의한 수입인데다 외투기업의 수입비중도 꾸준히 증가 추세 - 중국 내수확대에 의한 對中수출 확대 요인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3.2. 일·중간 수출입 구조

□ 일본의 對中 수출은 전기전자 및 기계류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전기전자, 수송용기계의 비중이 상승세

— 2003년중 일본의 對中수출중 전기·전자와 기계류 비중은 각각 28.3%와 22.3%를 차지하여 전체의 절반을 상회

○ 홍콩까지 포함할 경우 전기전자의 중국권 수출비중은 2003년중 32.2%로 전체의 1/3에 육박

— 전기전자, 수송용기계, 정밀기계의 비중은 5년전에 비해 상승한 반면 섬유, 철강금속, 일반기계류의 비중은 하락

○ 전기전자는 지난 1998년의 23.5%에서 2003년중 28.3%로, 수송용기계는 4.4% → 6.7%로 상승

○ 섬유류는 10.7% → 5.6%로, 철강금속은 11.5% → 9.2%로 하락

〈일본의 對中 수출구조〉

(백만달러, %)

	1998년		2003년	
	중국	중국+홍콩	중국	중국+홍콩
식 료 품	94 (0.5)	469 (1.1)	191 (0.3)	589 (0.7)
섬 유 류	2,138 (10.7)	3,005 (7.1)	3,186 (5.6)	4,064 (4.7)
화학제품	2,303 (11.5)	4,233 (9.9)	6,627 (11.6)	8,980 (10.3)
비금속광물	359 (1.8)	733 (1.7)	788 (1.4)	1,235 (1.4)
철강금속	2,300 (11.5)	4,104 (9.6)	5,242 (9.2)	6,748 (7.7)
일반기계	4,709 (23.5)	7,685 (18.1)	12,755 (22.3)	17,255 (19.8)
전기전자	4,714 (23.5)	12,232 (28.7)	16,200 (28.3)	28,086 (32.2)
(전자부품)	1,082 (5.4)	4,035 (9.5)	6,167 (10.8)	11,748 (13.5)
수송용기계	880 (4.4)	2,988 (7.0)	3,832 (6.7)	5,328 (6.1)
정밀기계	667 (3.3)	2,499 (5.9)	2,753 (4.8)	5,254 (6.0)
기 타	1,858 (9.3)	4,601 (10.8)	5,699 (10.0)	9,554 (11.0)
합 계	20,021 (100)	42,549 (100)	57,272 (100)	87,094 (100)

주 : 1) ()내는 비중 2. 엔화통계를 평균환율 의거 달러화로 계산 자료 : 외국무역개황

□ 일본의 對中 수입은 기계·전자 및 섬유류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기계·전자의 비중 상승이 뚜렷

- 2003년중 일본의 對中수입중 기계·전자와 섬유류의 비중은 각각 37.2%와 23.7%를 차지하여 전체의 60%를 상회
- 기계·전자의 수입비중은 5년전에 비해 크게 상승한 반면 식료품, 섬유 등 대부분의 품목은 비중이 저하
 - 기계·전자의 비중은 지난 1998년의 23.8%에서 2003년중 37.2%로, 13%p 이상 상승했으며 철강·금속의 비중도 3.9% → 4.2%로 소폭 상승
 - 반면 식료품은 같은 기간 15.6% → 8.1%, 섬유류는 26.2% → 23.7%로 하락하는 등 기계·전자 철강·금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입비중이 저하

〈일본의 對中 수입구조〉

(백만달러, %)

	1998년		2003년	
	중국	중국+홍콩	중국	중국+홍콩
식료품	447 (15.6)	457 (15.2)	6,107 (8.1)	6,134 (8.0)
섬유류	751 (26.2)	758 (25.3)	17,894 (23.7)	17,967 (23.4)
화학제품	97 (3.4)	98 (3.3)	2,238 (3.0)	2,247 (2.9)
비금속 광물	57 (2.0)	64 (2.1)	1,372 (1.8)	1,495 (1.9)
철강 금속	111 (3.9)	112 (3.7)	3,160 (4.2)	3,173 (4.1)
기계·전자	681 (23.8)	759 (25.3)	28,059 (37.2)	28,624 (37.3)
원자재	96 (3.4)	98 (3.3)	1,392 (1.8)	1,400 (1.8)
광물성 연료	107 (3.7)	107 (3.6)	2,530 (3.4)	2,530 (3.3)
기타	517 (18.1)	547 (18.2)	12,609 (16.7)	13,135 (17.1)
합계	2,864 (100)	3,001 (100)	75,359 (100)	76,704 (100)

주 : 1) ()내는 비중 2. 엔화통계를 평균환율에 의거 달러화로 계산 자료 : 외국무역개황

3.3. 일·중간 수출입 패턴 변화

□ 한편 일본의 對中수출은 완성품 보다는 부품의 증가가 뚜렷하여
중간재의 수출비중이 상승

— 음향·영상기기부품,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증가가 매우 컸는데 이들 3개 부품의 對中 수출비중은 지난 98년의 8.9%에서 지난해에는 17.7%로 상승

○ 전자부품(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지난해 10.8%에 달했으며 영상·음향기기 부품과 자동차부품도 각각 3.8%, 3.1%에 달하였음

— 반면 소재류는 부품류에 비해서는 수출비중 상승이 크지 않았으며 품목별로는 유기화합물은 수출비중이 상승한 반면 플라스틱, 철강제품 등은 오히려 비중이 저하

○ 유기화합물의 수출비중은 4.1% ('98년)→ 5.1%('03년)로 상승

□ 일본이 부품·소재에 강점이 있어 對中 부품수입이 많지는 않으나 전자부품의 수입비중이 상승 추세

○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수입은 지난 98년의 2.3억달러에서 지난해에는 8.3억달러로 증가하여 수입비중이 0.6% → 1.1%로 상승

〈일본의 對中 부품·소재 수출현황〉

(백만달러, %)

		1998년	2003년	연평균증가율
부품류	반도체 등 전자부품	1,082 (5.4)	6,167 (10.8)	<38.2>
	음향·영상기기 부품	456 (2.3)	2,172 (3.8)	<33.3>
	자동차 부품	251 (1.3)	1,785 (3.1)	<44.5>
	소 계	1,789 (8.9)	10,124 (17.7)	<38.0>
소재류	플라스틱	921 (4.6)	2,246 (3.9)	<16.6>
	유기화합물	827 (4.1)	2,896 (5.1)	<25.4>
	철강제품	1,509 (7.5)	3,711 (6.5)	<19.7>
합 계		20,021 (100)	57,272 (100)	<20.4>

주 : ()내는 비중

자료 : 일본 외국무역개황

□ 요소·기술집약도별 수출입구조를 살펴보면 고급숙련기술집약 제품에서의 일본의 對中 무역흑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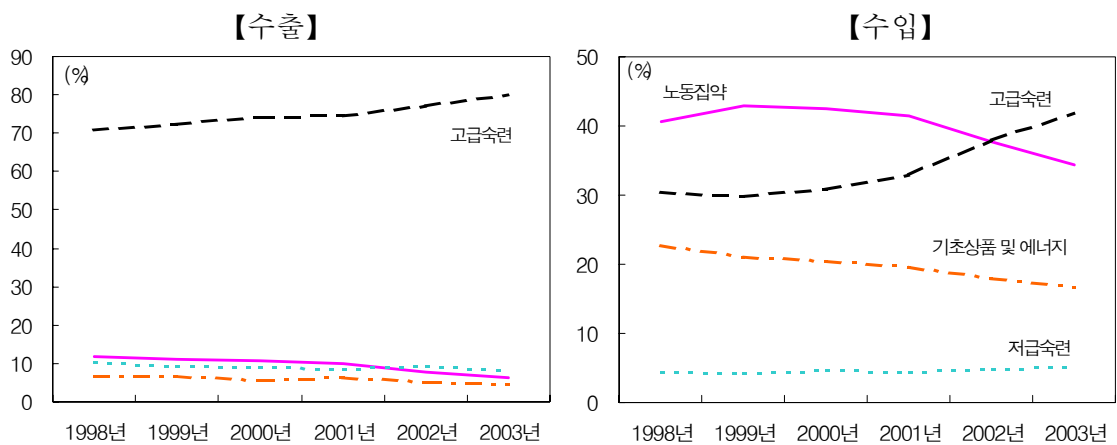
— 일본의 對中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기계 등 숙련(Skill)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고급숙련 기술제품이 대부분으로 약 80% 차지

— 對中 수입은 섬유 등 노동집약제품이 가장 많았으나 2002년부터 고급숙련 기술집약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음

— 고급숙련기술집약제품의 對中흑자가 크게 확대된 반면 기초상품·에너지, 노동집약 제품에서의 對中적자 확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2003년중 일본의 고급기술집약 제품의 무역흑자가 346억달러인 반면 기초상품, 노동집약분야의 적자규모는 225억달러에 달함

〈일본의 요소집약도별 對中 수출입 현황 (중국통계기준)〉



(억달러, 비중(%))

	1998년			2003년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기초상품·에너지	18 (6.5)	67 (22.6)	-48	33 (4.4)	100 (16.8)	-67
자원·노동집약	33 (11.7)	120 (40.6)	-87	47 (6.4)	205 (34.4)	-158
저급숙련기술집약	29 (10.2)	13 (4.3)	16	60 (8.1)	30 (5.1)	30
고급숙련기술집약	200 (70.7)	90 (30.4)	110	595 (80.2)	249 (42.0)	346
기 타	3 (0.9)	6 (2.2)	-4	7 (0.9)	10 (1.7)	-3
합 계	283 (100)	295 (100)	-12	742 (100)	595 (100)	148

주: 1. UNCTAD의 SITC 3단위 기준 요소집약도별 품목분류를 HS 6단위로 연계하였으며 분석의 편의상 별도항목이던 에너지를 기초상품에 포함시키고, 중급숙련과 고급숙련을 합하여 고급숙련제품으로 통칭하였음
자료: 중국무역통계

3.4. 주요 흑·적자 품목

□ 일본의 對中 주요 흑자품목은 반도체, 기계류, 자동차 등이며 주요 적자품목은 컴퓨터, 의류, 에너지 관련 제품임

— 최대 흑자품목은 반도체로 흑자규모가 1998년 20억달러에서 지난해에는 97억달러로 5년간 약 5배 확대

○ 승용차 및 자동차부품의 무역흑자도 98년 3억달러에서 지난해 31억달러로 10배 이상 확대

— 반면 일본의 對中 최대 적자품목은 컴퓨터로 나타났으며 의류와 원유, 석탄 등의 에너지 등도 주요 적자품목임

○ 10대 적자품목중 전기전자 등 중화학제품이 98년에는 한개도 없었으나 2003년에는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등 2개에 달함

〈일본의 주요 對中 흑·적자 품목 (중국통계기준)〉

(억달러)

	순위	1998년		2003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흑 자 품 목	1	직접회로 반도체	14	직접회로 반도체	75
	2	기계류	8	기계류	24
	3	개별소자 반도체	6	개별소자 반도체	22
	4	인조장섬유직물	5	액정디바이스	20
	5	컴퓨터부품	5	승용차	16
	6	철,비합금강,코팅코일	5	자동차부품	14
	7	염화비닐수지	4	철, 비합금강, 코팅코일	11
	8	폴리스틸렌	4	건설중장비	10
	9	승용차	3	환식탄화수소	10
	10	시계부품	3	축전기	10
적 자 품 목	1	편직제의류	-11	컴퓨터	-45
	2	직물제의류(여성용)	-11	직물제의류(여성용)	-20
	3	직물제의류(남성용)	-10	편직제의류	-16
	4	원유	-8	직물제의류(남성용)	-16
	5	어류통조림	-6	언더셔츠	-10
	6	운동복	-5	석탄	-10
	7	언더셔츠	-5	실내용품	-7
	8	실내용품	-5	원유	-7
	9	석탄	-5	여성용 자켓,슈트	-7
	10	가죽제가방	-5	평판디스플레이	-7

주 : 품목분류는 HS 4단위 기준

자료 : 중국무역통계

□ 일본의 對中 무역흑자 전환은 흑자 품목수 확대 보다는 일부품목의 흑자확대에 주로 기인

— 對中 흑자 상위품목의 흑자액 증가가, 적자 상위품목의 적자액 증가를 상회하여 일부 상위품목의 흑자확대 영향이 컸음을 뒷받침

- 지난해 상위 5대 흑자품목의 흑자액은 '98년에 비해 4배로 확대된 반면 상위 5대 적자 품목의 적자액은 2배로 확대된데 그침

〈일본의 對中 흑·적자 상위 품목의 금액 현황 (중국통계기준)〉
(억달러)

	일본의 對中 흑자			일본의 對中 적자		
	1998(a)	2003(b)	(b/a)	1998(c)	2003(d)	(d/c)
1~5위	-38	-157	4.08	46	107	2.35
6~10위	-20	-56	2.86	25	38	1.50
11~20위	-24	-71	2.92	29	57	1.95
21~50위	-44	-110	2.48	48	93	1.93
51~100위	-36	-83	2.32	34	63	1.88
101~200위	-30	-64	2.12	-25	-45	1.83

자료 : 중국무역통계

— 1억달러 이상 흑자 품목수의 증가가 1억달러 이상 적자 품목수의 증가를 상회, 반면 1억달러 미만에서는 적자 품목수 증가가 흑자 품목 수 증가를 상회

- 특히 2003년중 對中흑자가 100만불~1,000만불에 달하는 품목수는 지난 98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10억달러 이상 흑자 품목수는 98년의 1개에서 8개로 크게 증가

〈일본의 對中 흑·적자 규모별 품목 수 현황 (중국통계기준)〉
(개)

	일본의 對中 흑자			일본의 對中 적자		
	1998(a)	2003(b)	(b/a)	1998(c)	2003(d)	(d/c)
100만불 이상~1,000만불 미만	153	135	0.88	214	207	0.97
1,000만불 이상~1억불 미만	181	198	1.09	173	193	1.12
1억불 이상~5억불 미만	50	81	1.62	46	67	1.46
5억불 이상~10억달러 미만	3	17	5.67	6	13	2.17
10억불 이상	1	8	8.00	2	5	2.50

자료 : 중국무역통계

□ 양국의 보완관계가 높아 일본의 對中 흑자·적자 전환 품목이 많지는 않으나 흑자전환은 전자부품, 가공 원자재 등이 대부분임

— 對中 수출이 기술집약제품에 집중되어 있어 흑자전환 품목은 액정디바이스 등 동일 품목내의 고부가제품과 중국수요가 증가하는 일부 화학제품 등임

○ 액정디바이스는 지난 1998년 0.3억달러 적자에서 지난해에는 20억달러 흑자로 전환

· 내시경용 고급 액정디바이스 수출이 급증한데 반해 광학기기용 제품의 對中수입은 감소한데 따른 것임

□ 반면 유선전화기, 복사기, 모터싸이클 등 범용전자제품 등에서 對中 적자 전환이 뚜렷함

— 그 외에도 일부 철강재 및 선박, 석유제품 등에서도 일본의 對中 무역적자로의 전환이 나타남

〈일본의 對中 흑자·적자 전환 품목 (중국통계 기준)〉

(백만달러, %)

흑자전환 품목	1998년	2003년	적자전환 품목	1998년	2003년
액정디바이스	-31	2,004	유선전화기기	117	-225
엔진모터 원동기	-2	79	복사기 및 부품	20	-161
중량측정기기	-45	60	모터싸이클	0	-82
고온콜타르	-12	55	철강재 단조물	5	-50
석유코크스	-27	38	투영기, 사진확대기	2	-39
필라멘트램프	-2	28	비모터 화물선	4	-39
인조흑연	-2	24	석유제품	165	-38
특수선박	-0	22	수지식공구	1	-35
탄소전극 및 제품	-2	19	사진 인화지·판지	1	-23
표면연마 판유리	-3	16	유약제 자기타일	2	-21
화학목재펠프	-0	15	재생 필라멘트사	1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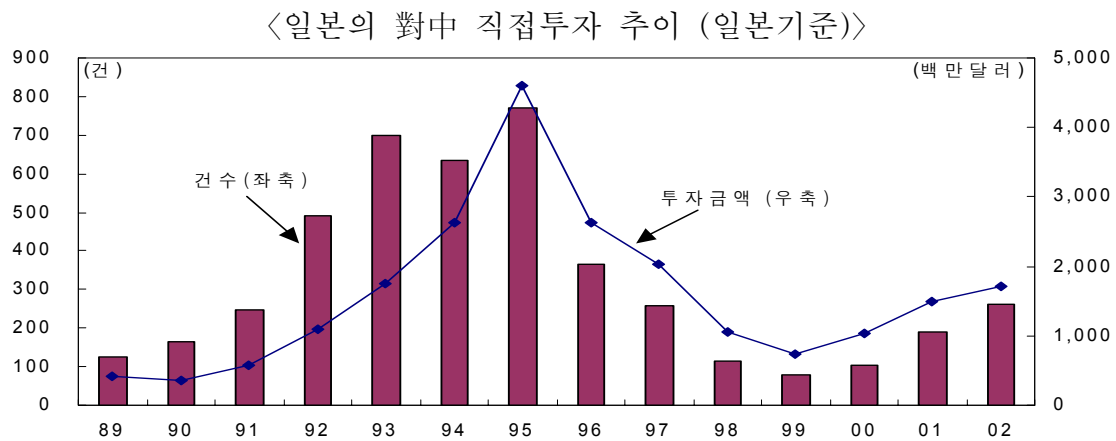
자료 : 중국무역통계

3.5. 일본 및 주요국의 對中투자 확대에 따른 수출증가

1) 對中 투자 개황

□ 일본의 대 중국 투자는 1995년 이후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2000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

— 2000년 이후 對中투자 확대는 중국의 WTO 가입, 전자, 자동차산업의 현지화전략 가속화, 중국의 투자환경 개선 등에 기인



자료 : 일본 재부성

□ 중국기준으로 일본은 중국의 세번째 외국인직접투자 국가에 해당

— '03년말 기준 누계 투자액이 414억달러로 홍콩, 미국 다음임

— 이러한 투자규모는 한국에 비해 2.1배 높은 수준이며, 건당 투자액도 202만달러로 우리나라에 비해 49.6% 높은 수준

〈중국기준 외국인투자액 (2003년말 누계기준)〉

(건수, 억달러)

순위	국가	신고건수(a)	신고금액(b)	실행금액(c)	건당투자액(b/a)
1	홍콩	224,509	4,145	2,226	185만달러
2	미국	41,340	864	441	209만달러
3	일본	28,401	575	414	202만달러
4	대만	60,186	700	365	116만달러
5	싱가포르	11,871	436	235	367만달러
6	한국	27,128	367	197	135만달러

자료 : 중국 상무부

□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전체 투자액의 74%에 달하는 가운데 제조업 중에서는 전자분야의 투자가 가장 많음

— 제조업 중 전자분야 비중이 누계기준 26.9%에 달하며 기계류 12.3%, 섬유 11.4%, 수송기계 11.1%의 순

〈1989년~2002년도¹⁾중 일본의 업종별 對中 직접투자 현황 (누계)〉

(건,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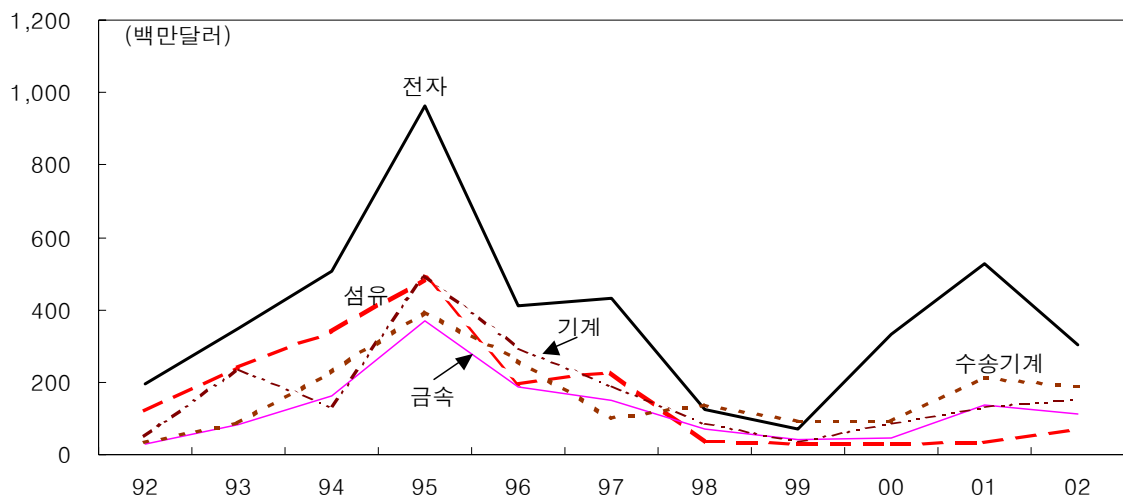
비 제조업	건수	금액	제조업	건수	금액
농림업	21	37 (0.7)	식품료	229	1,036 (5.6)
수산업	31	65 (1.1)	섬유	1,333	2,101 (11.4)
광업	17	59 (1.0)	고무·펄프	68	288 (1.6)
건설	47	443 (7.7)	화학	222	1,371 (7.5)
무역	195	1,172 (20.5)	금속	276	1,563 (8.5)
금융·보험	13	296 (5.2)	기계류	281	2,257 (12.3)
서비스	297	2,415 (42.2)	전자	500	4,944 (26.9)
운수	72	251 (4.4)	수송기계	223	2,036 (11.1)
부동산	83	991 (17.3)	기타	551	2,772 (15.1)
소계(a)	776	5,729 (100)	소계(b)	3,683	18,369 (100)
해외지사 투자(c)	46	688 -	총액 (a+b+c)	4,505	24,786 -

주 : 1) 회계연도 기준 2) ()내는 비중

자료 : 일본 재무성

— 연도별로는 섬유류의 투자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전자는 2000년부터, 자동차는 2001년부터 큰 폭의 증가세 시현

〈일본의 업종별 對中 직접투자 현황 (연도별)〉



※ 일본 주요기업의 대 중국 진출 사례

산업	업체	중국진출 현황
전자	소 니	· '96년 중국법인 설립후 '03년까지 8억달러 이상 투자 · 廣州市에 중국내 7번째 생산시설 설립 발표 ('04. 3월) · '05년 5,000억엔, '08년 1조엔 매출 목표 · 중국내 생산은 대부분 현지 내수를 목표
	마쯔시다	· '01년 12월, 강소성 소슈 신구에 반도체회사를 설립하여 휴대전화, DVD 등에 소요되는 반도체 소자 생산 · 중국내에서 2005년 1조엔 매출 목표 · 가전제품도 PDP, DVD 등 고부가상품으로 대체
	N E C	· NEC가 03년 1월부터 투입한 10종의 휴대폰을 금년중 20종으로 확대하여 고가품 시장 공략 · 중국에서의 솔루션 사업 강화를 위해 기존의 현지법인 3사 및 중국관련 부문을 통합하여 신규 회사를 금년 7월 까지 설립키로 함
자동차	도요타	· 부품에서 완성차로 확대 진출 · 천진도요타에서 2002년 소형세단 생산, 2005년중 크라운 등 최고급차 5만대 생산 계획 · 長春市와 廣州市의 도요타엔진에서 '05년중 각각 13만기와 30만기의 엔진 생산 예정
	혼 다	· 중국을 수출용제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 · '04년 봄 東風혼다신공장 가동 (武漢, 3만대, 차종 CR-V) · '04년 말 廣州에 수출전용공장 가동(5만대, 차종 피트)
	닛 산	· 東風汽車는 03년 7월에 조업을 개시해, 금년 하반기매출액은 약 2240억엔, 07년에는 1조 540억엔 예상 · 판매는 03년의 30만대 → 07년에는 62만대를 목표
기계	스미토모 금속공업	· 惠州住金鍛造유한공사 설립 (廣東省 惠州市, 20억엔) · '04년 하반기부터 자동차용 단조 크랭크샤프트를 연간 80만개 생산
	다이킨 공업	· 중국에 공조기, 압축기 생산을 위한 3개 거점 계획중 · 공조기(상해), 중앙공조기(상해), 압축기(소주) · 2005년중 공조기 매출액을 800억엔으로 확대 목표
	브라더 공업	· 4월중 산사성에서 「CNC tapping 센터」 공작기계 생산 개시 · 상해에 영업 및 기술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립 · 상기 공작기계의 매출을 06년까지 45억엔을 확대

자료 : 일본 언론자료 및 무역협회 지역연구팀 「중국특수의 실상 (2004.5)」 취합

2) 對中 무역흑자 전환 원인

□ 일본의 對中 흑자 전환은 對中 투자확대로 중국현지의 일본기업은 물론 제3국 외투기업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고 있는데 따른 것임

— 철강,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기계장치 4개품목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에 진출한 현지 일본기업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점차 증가 추세

○ 상기 4개품목군의 對中 투자 일본기업에 수출비중이 '96년 15.5%에서 지난해에는 21.6%로 크게 증가

- 철강제품 비중 : 10.9% ('96년) → 18.9% ('02년)
- 전자부품(반도체) : 2.1% ('96년) → 13.7% ('02년)
- 자동차부품 : 2.2% ('96년) → 4.9% ('02년)
- 기계장치 : 11.1% ('96년) → 11.2% ('02년)

○ 이는 일본기업의 현지생산 확대로 부품의 수요가 많아지는데다 생산시설의 신증설로 철강, 기계 등 자본재 수요가 증대되는데 따른 것임

〈일본의 對中 투자 일본계 기업에 대한 품목별 수출 비중〉 (%)

	품목별 대중국 수출비중		품목별 증가율 ²⁾ (2002년)	
	1996	2002	대 중국	전체
철강제품	10.9	18.9	40.7	14.6
-도금철강	17.7	23.1	54.3	17.1
-냉연강판	37.8	23.3	82.1	16.5
-강관제품	6.1	20.4	73.0	-1.3
반도체 및 전자부품	2.1	13.7	70.6	3.2
-개별소자	3.8	13.3	50.6	9.6
-직접회로	1.7	12.9	97.2	3.2
자동차부품	2.2	4.9	15.2	7.0
-안전벨트	0.0	13.7	20.6	-19.6
-브레이크 시스템	2.4	5.4	24.4	9.3
기계장치	11.1	11.2	71.2	-19.8
-기계요소	8.9	14.3	42.1	-16.7
소 계	15.5	21.6	49.3	5.3

주 : 1) 각 품목별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 진출 일본기업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임
 2) 2001년대비 2002년의 수출증감율
 자료 : JETRO 白書 (14쪽)

— 중국내의 제3국 투자기업에 대한 수출증가도 대 중국 수출증가 요인임

- 중국의 對日 전체수입중 외투기업에 의한 수입비중이 67.2%에 달하여 수입액의 3/2가 중국내 외투기업에 의한 수입으로 조사

〈중국의 국가별 수입중 외투기업¹⁾의 비중〉

(억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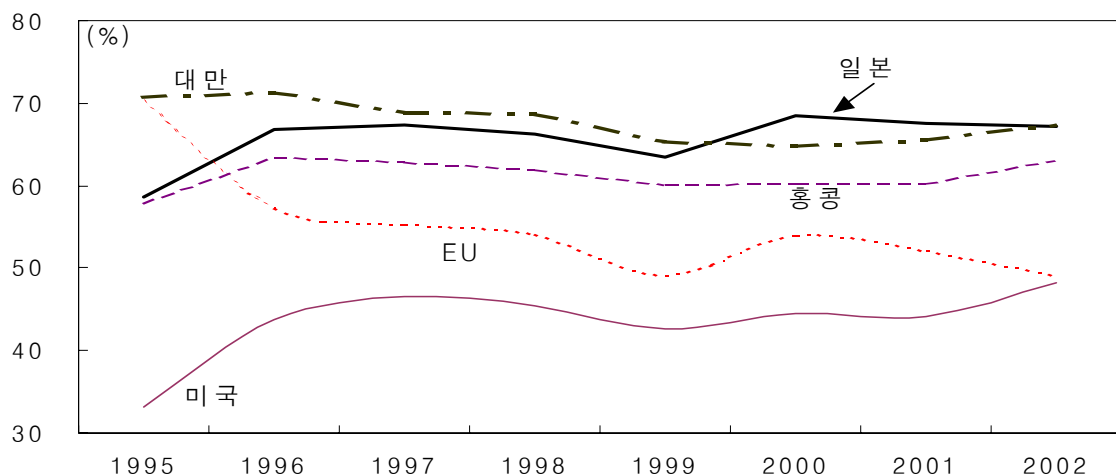
	2001년			2002년		
	전체수입 (a)	외투기업수입 (b)	비중 (b/a)	전체수입 (a)	외투기업수입 (b)	비중 (b/a)
한 국	286	140	48.9	432	181	41.9
일 본	428	289	67.5	535	359	67.2
대 만	273	179	65.4	381	256	67.3
홍 콩	94	57	60.3	108	68	63.1
미 국	262	116	44.1	272	131	48.1
E U	356	186	52.1	386	189	49.1

주 : 1) 외투기업의 수입은 중국내 전체 외투기업을 의미

자료 : 중국 상무부

- 중국의 국가별 수입에서 중국내 외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과, 대만이 가장 높은 편이며 대만은 비중이 소폭 감소한 반면, 일본은 대체로 증가세

〈중국의 국가별 수입중 외투기업의 비중 추이〉



- 이는 중국내 일본계 외투기업의 對日 수입이 증가한 탓도 있으나 비 일본계 외투기업의 對日 수입 증가도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에서 일본의 비중은 8.1%에 불과한 반면 전체 외투기업의 수입 중 對日 수입은 22.4%에 달하고 있어 비 일본계 외투기업에서도 對日수입이 적지 않음을 시사

〈중국 외투기업 수입의 국별 비중 및 국별 투자 비중〉 (%)

	미국	홍콩	일본	대만	한국	싱가폴
중국내 외투기업의 국가별 수입 비중 (a)	8.18	4.25	22.43	15.99	11.28	2.69
외국인투자 비중(b)	8.90	45.73	8.11	7.39	3.39	4.79
차이 (a-b)	-0.72	-41.48	14.32	8.60	7.89	-2.10

자료 : 중국 상무부

□ 반면 중국 내수 확대에 의한 對中 수출증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對日 수입액중 외투기업에 의한 수입이 3/2에 달하여 자국 기업에 의한 수입은 1/3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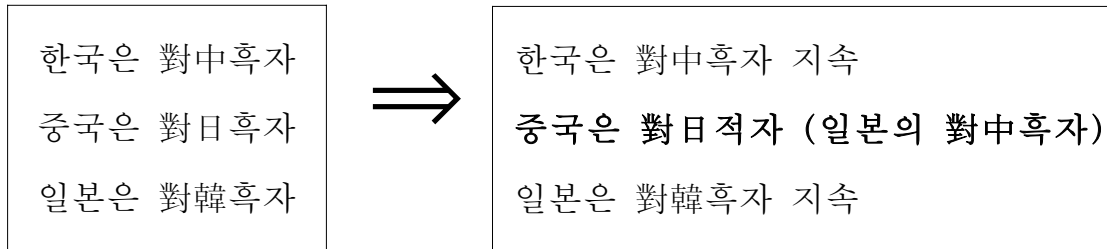
- 중국내 외투기업의 대일수입액 비중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중국기업의 수입비중은 대체로 하락

— 결국, 일본의 對中 수출 증가는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對中 투자가 증가하면서 중국 내 외투기업을 중심으로 對日 부품, 중간재 등의 수입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4. 결론 및 시사점

- 일·중간 무역수지 차이를 조정한 결과 일본의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 1990년대 이후 적자 기조가 지속되었으나 2003년부터 무역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 조정후 일본의 對中 무역수지는 지난 2001년에 적자규모가 최대에 달했으나 2002년부터 급속히 축소되어 2003년중 5억달러, 금년 1~4월중 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일본의 對中 무역수지 흑자반전은 일부 상위 품목의 흑자확대, 일본의 대 중국 진출 확대 및 중국에 진출한 세계 각국 외투기업의 對日 수입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일본의 對中 수출이 2000년대 들어 전자, 기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수출구조가 변화
 - 중국의 대외 수출확대에 따라 일본의 對中 수출도 완성품 보다는 부품을 중심으로 증가
 - 일본의 對中 흑자전환은 전자부품(반도체), 기계류 등 일부 상위 흑자품목의 흑자가 크게 확대된 영향이 큼
 - 또한 세계 각국의 對中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외투기업의 對日 수입확대도 일본의 對中 흑자를 유발
- 이에 따라 그동안 유지되어온 한·중·일 3국간 상호 흑자 연쇄고리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나타남
 - 그 동안 「한국은 對中흑자, 중국은 對日흑자, 일본은 對韓흑자」라는 3국간의 무역흑자 상호 연쇄고리가 유지되어 왔음

- 그러나 일본의 對中 무역수지가 흑자로 반전되어 일본이 한국, 중국 모두에 대해 수출 우위의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
- 이에따라 한·중·일 역내교역에서도 일본의 흑자, 중국의 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은 소폭 흑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중국의 對日 수입구조가 전자, 기계류 부품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한국의 對日 수입구조와 중국의 對日 수입구조가 점차 유사해 지고 있음

- 한국과 중국의 대일수입 상위 20대 품목중 중복품목은 지난 1998년 7개에서 2003년에는 12개로 증가
 - 양국의 상위 50위 대일수입에서는 중복품목이 26개→28개, 100대 품목에서는 59 → 65개로 증가
 - 주요 중복품목은 반도체, 기계류, 무선통신부품, 자동차부품 등임

〈한국과 중국의 對日 수입 품목중 중복 품목수〉

	1998년	2003년
1~10위	4	5
1~20위	7	12
1~50위	26	28
1~100위	59	65

주 : HS 4단위 기준

- 중복품목 대부분이 부품 또는 중간재 등으로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출증가가 對日수입을 유발시키고 있음을 시사

〈한국과 중국의 對日 중복 수입 품목〉

	1998년	2003년
1~10위	① 직접회로 반도체 ② 기계류 ③ 개별소자 반도체 ④ 무선통신부품	① 직접회로 반도체 ② 개별소자반도체 ③ 기계류 ④ 무선통신부품 ⑤ 자동차부품
1~20위	⑤ 평판디스플레이 ⑥ 컴퓨터 ⑦ 축전기	⑥ 환식탄화수소 ⑦ 광섬유케이블 ⑧ 무선송수신기기 ⑨ 철,비합금강,코팅코일 ⑩ 전기회로기기 ⑪ 컴퓨터 ⑫ 인쇄회로

주 : HS 4단위 기준

- 일본의 對中수출이 첨단제품에 집중되고 있어 對中흑자는 향후에 더욱 확대될 소지가 큼

- 일본은 첨단 기술집약제품에서 흑자를 시현하는 반면 기초상품·에너지, 노동집약 상품에서는 적자를 시현

- 중국의 산업구조상 일본산 첨단제품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나, 일본의 중국산 기초상품, 노동집약 제품 수요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한·중·일 3국무역중 점차 일본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없지 않음

- 한국과 중국의 對日 수입구조 유사化는 한국과 중국의 對日 수입의 존도가 심화됨과 동시에 한국과 중국의 경합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따라서 현재 한국이 3국간 무역에서 소폭의 흑자를 실현하고는 있으나 對中교역이 점차 균형으로 발전할 경우 3국간 역내무역에서 적자를 실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일본의 견제 및 중국의 도전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산업구조 재조정이 필요

- 對日 무역적자 완화 및 對中 무역흑자 지속을 위해서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첨단제품 및 1등상품 개발이 핵심 과제임
- 對中 직접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 생산기지 이전보다는 한·중간 공정별 생산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통한 독자적인 비교우위 확보가 긴요
- 또한 장기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산업발전 단계에 맞춰 상위 보완 산업분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시급히 재편하는 것도 필요함

[부록 1] 일·중간 수출입(무역수지) 통계 조정

1. 일·중간 무역수지 조정의 기본 개요

□ 2003년의 경우 양국의 무역수지 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음

〈 2003년 조정 후 무역수지 추정 〉

(억달러)

		일본기준			중국기준			양국간 수지오차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조정 전 (a)		573	754	-181	595	742	-148	-329
조 정	홍콩 재수출 (b)	170 ⁵⁾			105 ⁶⁾			
	운임보험료 (c)		-30			-30		
	수입과소계상 (d)		8			11		
마크업 (e)		-17 ¹⁾	-10 ²⁾		-10 ³⁾	-17 ⁴⁾		
조정 후 (마크업 반영)		726	721	5	689	707	-18	-13

주 : 1) 백만달러 기준으로 통계를 조정하여 끝자리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홍콩경유 마크업율은 10%를 가정

- **조정전(a)** : 일본과 중국이 발표하는 원 계열 수출입 및 무역수지 통계
- **홍콩 재수출(b)** : 양국이 홍콩을 통하여 상대국에 재수출한 것으로 홍콩 재수출 통계를 이용하였음
- **운임보험료(c)** : 양국의 CIF 수입통계를 FOB로 환산하기 위해 수입액의 4%만큼을 운임보험료로 간주하여 수입액에서 차감
- **수입 과소계상분(d)** : 양국의 수입통계에서 모두 홍콩수입으로 기록되었으나 홍콩 통계를 이용할 경우 상대국 수입인 것으로 추정되어 해당액만큼을 양국 수입에 포함시킴. 자세한 내용은 27쪽을 참조바람.
- **마크업(e)** : 재수출 통계가 홍콩기준으로 작성되어, 홍콩경유에 따른 홍콩업체의 수수료, 가공료 등 마크업을 고려함. 일·중간에는 현지투자 업체에 대한 교역이 적지 않아 마크업율을 10%로 가정

- 1) 일본의 홍콩경유 재수출액중 차감 : 170억달러(5) × 10% = 17억달러
- 2) 일본의 홍콩경유 對中수입액중 차감 : 105억달러(6) × 10% = 10억달러
- 3) 중국의 홍콩경유 재수출액중 차감 : 105억달러(6) × 10% = 10억달러
- 4) 중국의 홍콩경유 對日수입액중 차감 : 170억달러(5) × 10% = 17억달러

2. 일·중간 홍콩경유 수입의 과소계상분 추정 (홍콩통계를 이용)

〈연도별 일본의 對中수입 과소계상분 추정〉

(억달러)

	홍콩의 對日수출 (a=b+c)	재수출 (b=d+e)			자체 (c)	일본의 대홍콩 수입(CIF) (e)	일본의 대홍콩 수입(FOB) (f=e×96%)	일본의 對中수입 과소계상분 (f-c)×($\frac{d}{b}$)
		중국→일본 (d)	기타→일본 (e)					
1995년	106	91	76	14	15	27	26	9
1996년	118	104	90	13	15	26	25	9
1997년	114	100	88	12	14	23	22	7
1998년	91	83	73	10	8	17	17	7
1999년	94	87	75	12	7	18	17	9
2000년	112	105	93	13	7	17	16	8
2001년	112	107	96	11	5	15	14	8
2002년	107	104	93	11	4	14	14	9
2003년	121	117	105	12	4	13	13	8
04.1~4	42	41	37	4	1	5	5	3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일본무역통계, 중국해관통계, CEIC

〈연도별 중국의 對日수입 과소계상분 추정〉

(억달러)

	홍콩의 對中수출 (a=b+c)	재수출 (b=d+e)			자체 (c)	중국의 대홍콩 수입(CIF) (e)	중국의 대홍콩 수입(FOB) (f=e×96%)	중국의 對日수입 과소계상분 (f-c)×($\frac{d}{b}$)
		일본→중국 (d)	기타→중국 (e)					
1995년	594	496	120	376	82	86	83	0
1996년	619	540	122	418	80	78	75	-1
1997년	649	573	128	446	82	70	67	-3
1998년	598	526	122	404	72	67	64	-2
1999년	585	515	118	397	65	69	66	0
2000년	694	628	134	494	70	94	91	4
2001년	705	637	125	512	64	94	90	5
2002년	801	734	134	600	53	108	104	9
2003년	954	907	170	737	47	111	107	11
04.1~4	336	323	63	260	13	35	34	4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일본무역통계, 중국해관통계, CEIC

3. 연도별 조정후 일·중간 무역수지 추이

〈연도별 일본의 對中 무역수지 조정〉

(억달러)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당초 (a)	홍콩 경유 (b)	마크업 (10%) (c)	조정후 (d=a+b-c)	당초 (e)	운임· 보험료 (f=e×4%)	수입과 소계상 (g)	마크업 (10%) (h)	조정후 (i=e-f+g-h)	당초 (a-e)	조정 (d-i)
1995	219	120	12	328	360	14	9	8	347	-140	-19
1996	221	122	12	331	409	16	9	9	392	-187	-61
1997	219	128	13	333	421	17	7	9	402	-202	-69
1998	200	122	12	310	370	15	7	7	355	-170	-46
1999	233	118	12	340	428	17	9	8	412	-195	-73
2000	304	134	13	425	552	22	8	9	529	-248	-104
2001	310	125	13	423	578	23	8	10	554	-269	-131
2002	398	134	13	518	617	25	9	9	592	-219	-73
2003	573	170	17	726	754	30	8	10	721	-181	5
'04.1~4	227	63	6	284	293	12	3	4	281	-66	3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일본무역통계, 중국해관통계, CEIC

〈연도별 중국의 對日 무역수지 조정〉

(억달러)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당초 (a)	홍콩 경유 (b)	마크업 (10%) (c)	조정후 (d=a+b-c)	당초 (e)	운임· 보험료 (f=e×4%)	수입과 소계상 (g)	마크업 (10%) (h)	조정후 (i=e-f+g-h)	당초 (a-e)	조정 (d-i)
1995	285	76	8	353	290	12	0	12	267	-5	87
1996	309	90	9	390	292	12	-1	12	267	17	123
1997	318	88	9	398	290	12	-3	13	262	28	136
1998	295	73	7	361	283	11	-2	12	258	12	103
1999	324	75	8	392	338	14	0	12	313	-14	79
2000	416	93	9	499	415	17	4	13	390	1	110
2001	451	96	10	537	428	17	5	13	404	23	134
2002	485	93	9	569	535	21	9	13	509	-50	59
2003	595	105	10	689	742	30	11	17	707	-148	-18
'04.1~4	221	37	4	254	297	12	4	6	283	-77	-29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일본무역통계, 중국해관통계, CEIC